

2014년 10월 13일 새벽말씀

금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대에 대한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이 사는 생활도 보면 역시 <기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대! 자식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것, 또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 형제끼리 기대하는 것! 잘 안되지 않습니까? 기대만큼.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기대하고, 남편에게 부인에게 기대하는 것, 애인끼리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대대로 안 돼서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돌리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벽마다 인생의 수준에 맞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벌써 어제 해 주시고, 그저께도 주일날 해주셨고, 오늘 화요일 새벽에 또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게 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우리들에게 맞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수준 높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더 높게 해 주실 것입니다. 수준 높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대로 해 주시니까.

기대! 기대대로 여러분들이 잘 안 되었지요? 아마도 안 된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기에 기대를 건 것을 자기도 못 해 주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에 기대했는데 자기 기대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게을러서 못 했다. 열심이 없어서 못 했다. 환경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못 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다 분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기대대로 못 해 주어서 자기 기대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기르시고, 어려움을 돕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해 주어야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힘도 주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못 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하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들어보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늘 앞에 충성하고, 하늘에게 해 줄 것을 해 주고 바랄 것을 바라며 나가야 모든 천주의 법칙상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흔히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콩을 심었을 때 콩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납니다. 팔을 심었을 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팔이 밭에서 큼니다. 그런 법칙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 행하는 대로 받으리라. 많이 행하는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적게 행하는 자는 적게 받을 것이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불만도 불평도 없고, 그저 인생 누구한테 원망할 것도 없다. 자기의 행위대로 되는데 무엇을 누구에게 원망을 하느냐? 탓하느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리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안 되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연단을 해야지요.

약한 몸을 가지고는 마음을 다 해 봤자 약합니다. 그리고 무지 속에서 마음을 다 해 봤자 무지합니다. 배우고, 깨닫고, 얻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얻어서는 다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어야 풍부하게 주시지, 사람들에게 받으면 조금 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인생들을 살고 있다.”

민족에게 기대, 가정에게 기대, 세계에게 기대를 걸고 살고 있고, 친구, 동료,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기대를 거는데 그 기대대로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하면 축복 받고, 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서 축복을 받자. 사람들은 서로 덕을 보려고 하며 살기 때문에 서로 유익을 보려고 하면서 산다.”

다시 말하면 파는 자도 유익 보려고 하고, 사는 사람도 물건을 싸게 사서

유익 보려고 하니깐 거기서 크나큰 기대가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엄청난 유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속이고, 속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아, 나는 물건 잘 샀다.” 합니다.

가령 달러로 계산한다면 500달러 주어야 하는데 100달러 주고 샀으면 기분 좋다고 하지만, 파는 사람도 “아이, 기분 좋다. 50달러짜리를 500달러 불렀더니 충분히 깎아서 기분 좋게 고객들에게 해 주고 그래도 배 장사를 했다. 기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험난하고, 너무 서로 성공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니, 가령 100명이 성공 길을 가면 그 중에서 몇 명이, 두 명이나 세 명이 성공합니다. 그것도 많이 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좌절입니다.

달음질을 할지라도 10명이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고, 마라톤을 할지라도 온 세계 사람을 다 대표해서 뛰어도 한 명밖에 승리자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2등, 3등에서 끝납니다.

그러니 모든 세상살이가 회박합니다. 그것을 보고 도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에 대해서 그 고달픔을 한번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다 고달픈 인생살이다.”

하나님께 나가면 10명 다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 100명 다 성공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다 성공시켜 줄 테니까.”

거기에는 경쟁도 없고, 열심히 해서 서로 상대가 잘 돼야 나도 더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더 3배가 잘 되고, 저 사람이 잘 되면 더 5배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상대도 잘 돼야 되는데, 세상은 대개 자기만이 잘 되는 세계를 추구해 나갑니다.

한번 결과론적으로 볼까요? 10명이 있는데 다 안 되고 경쟁 속에 하나가 잘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쫓아내고 거기서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 가서는 혼자 사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혼자 살게 되면 나중에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이 같이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겨 즐거워하면 이상 세계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의 방법은 다 없애고 자기만이 쓸 때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걸고 세상을 살아왔지만 기대가 어긋났습니다. 기대대로 된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나도 많은 기대대로 안 돼서 인생을 한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슬퍼하며 살았습니다. 기대대로 안 된다고. 가정의 기대, 개인의 기대, 나에게 대한 기대도 안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기대대로 안 되니까 좌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기대대로 잘 안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도해 가는데 잘못 지도해서 후회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내가 멍청한 짓을 했지? 왜 고생하는 짓을 했지?’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인생을 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별 볼일 없다고 좌절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며, 그리고 안 되면 남을 괴롭히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절망적인 세계로 세상을 만들어서 삽니다. “어쩔 수 없이 살 수 밖에 없다.”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사는 맛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문하는 사람들, 여러 기대를 걸고 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될 줄을 몰랐다. 너무나도 불행하게 되었네.” 모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가서 물어 봐요. “형제여! 선배여! 아저씨여! 또한 사장님이여! 혹은 정치가여!” 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기대대로 잘 되고 있는가? 정말로 만족하게 잘 되고 있는가? 나는 기대대

로 잘 되는 비법을 아는 사람이요. 속 이야기를 해 보면 내가 가르쳐 주리라.” 하면 이야기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로 잘 된다. 방법은 이런 방법이다. 종전에 믿던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면 잘 된다.”

이 산악 절벽도 타는 방법을 알면 잘 올라갑니다. 그러나 방법을 모르면 못 올라갑니다. 평생 못 올라갑니다.

그와 같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회사가 제대로 안 된다. 자식 농사를 제대로 못 지었다. 나는 애인 농사도 제대로 안 됐다. 실망했다. 불만이 많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그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러는 사람이 98%가 넘을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지내고, 자기의 기대대로 다 된 사람도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돼지처럼 먹고, 잠만 잤네. 그리고 퇴비만 남겼네.’ 그러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사람 중에 있어서도 “내가 남는 것이 없다.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확신을 못 하겠다. 이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니까. 특별히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천국은 확실히 갈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다. 열심히 젊었을 때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고, 혹은 어떤 자는 열심히 다녀도 “내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다.” 하고, 어떤 자들은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좌절해 버립니다. 그저 일개 교회가, 일개 역사가 좌절해 버립니다.

심리적으로서 “우리는 잘 된다. 죽으면 천국 간다.” 했던 유대 종교인들도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인생 성공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인정받기까지 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려고 내 입을 통해서 나와 함께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성령도 감동시켜 주며 간다면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 하니까요.

“알아도 못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하도록 붙잡아 주고 인도를 해 주지.”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내다볼 때 기대대로 안 된 일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도 내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러 기대가 있지요? 부인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기대대로 잘 됐습니까?” 하니 웃기만 했습니다. 그것 어렵지요. 자식들 기대대로 잘 되었는가 물어보면 또 웃습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많은 것을 생각한 것이 안 됐는지, 나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아버지 기대대로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그런 기대들을 걸지를 앓았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에게는 많은 기대를 나름대로 걸었답니다. 장남에게 걸고, 두 번째도 걸고, 네 번째도 다 걸었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안 걸었다고 했습니다.

왜 안 걸었느냐고 하니까 “너는 별 볼일 없었잖아. 그래서 안 걸었다.” 그래서 그것이 ‘참’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참입니다. 그 말함이 마땅합니다. 기대를 정말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어떤 기대를 걸었어도 팬찮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집에서 하나 잘 되면 그게 잘 된 것입니다. 기대대로 잘 된 것입니다. 아니, 온 지구상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한 집에서 하나만 잘 되면 그것이 크게 감격할 일입니다. 있는 자식대로 다 그렇게 크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잘 된 것이면 모두 잘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샘을 다섯 개 봤는데 그 중에 한 샘만 물이 펴펴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샘물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날이 기억납니다.

이와 같이 종교가 있는데 그 엄청난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장남 종교, 두 번째 종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종교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은 그에 만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셨고, 요셉 때는 요셉을 갖고 만족하게 사셨고, 다윗 때는 다윗을 갖고 기뻐하며 만족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기대에 어긋났지만, 그 하나 갖고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시대 우리 사랑하는 하늘의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다 잘 되게 해서 하나님 기대대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를 걸어도 괜찮다고 그렇니다.

“그 대신 나를 통해서 말씀을 쉬지 말아 주세요. 말씀을 쉬지 말고, 계속 신의 혀가 났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기대대로 될 것입니다. 이때 못 하면 하나님도 마지막 역사라 못 하니까, 이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기대가 어긋났어도 이때만큼은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때 못 한 것, 신약 때 못 한 것이 있으면 이때 꼭 해 주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가 기대를 어긋나게 했어도 “아,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하면서 밀어붙이고 나가면 선생님도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나 힘들어. 나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안 쳐다봅니다. 열심히 하겠다는 그를 쳐다보면서 기뻐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기대를 채워 주며 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어긋나게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하나님도 가슴이 무너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쇼크를 받습니다.

구약 때의 기대는 그대로 안 됐습니다.

신약 때에는 그 나름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면서, 온 인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가면서 그 나름대로 기대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한 쪽은 안 했지만, 다른 한쪽에서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약 때에 신약 때에 기대대로 안 된 일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의 조건을 못 세우고 실천 못 했기 때문에 기대대로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예수님이 죽어서 못 한 일들을 모두 모두어

이 시대에 하겠다고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되고,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죽음의 계곡을 들랑날랑 해야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이 지난 무덤 기간이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갑니다.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억울함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있잖아. 나 있는데 뭐. 세상이 다 뒤엎여도 나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지금 봐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 그리고 영계가 얼마나 많다고.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나와 하나 되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호랑이가 산 속에 있는 많은 돼지, 고양이, 토끼까지 모두 창피를 주고 무렵을 주어도 그까짓 것 무엇이 겁나냐.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한번 오르렁거리면 다 끝나는 데.” 그렇게 위로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고 한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하라.” 그러합니다.

“무엇이 걱정할 것이 있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그러합니다.

“너희는 힘들지만 나는 쉬워.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쉬고. 하나님은 그 진리가, 법칙이, 그 순리가 안 보이시는 존재자이시니까. 안 보이면서도 옆에 사는 존재자이시니까.”

사람들이 증직자나 오래된 사람들도 내 영이 자기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민망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런 사람들은 옆에 갖다놓고 같이 살아도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 보였을 때 사상, 정신, 사고를 다 고쳐라.” 그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안 보여도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알아듣기 쉽게, 인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섭리의 사람들! 한 나라만 갖고 외치는 말이 아니고 온 교회들에게 외칩니다.

저 싱가포르 교회, 말레이시아 교회들, 베트남 교회들, 그리고 중국의 교회

들, 그리고 필리핀 교회들, 대만의 교회들, 일본의 교회들, 한국의 교회들, 그리고 영국의 교회들, 그리고 저쪽으로 이탈리아 교회들, 그리고 프랑스 교회들, 스페인 교회들, 저쪽으로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캐나다 교회들, 미국의 교회들, 그리고 뉴질랜드 교회들, 그리고 남미 쪽으로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그리고 호주의 교회들에게 다 외칩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잊어버린 교회들은 또 내일 아침에 해 줄까요? 나머지도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 하면 빠질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두 외친다.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자로서 우리 속에서 늘 역사하시며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는 동물을 가지고도 자기 뜻을 전달하시고, 바람을 가지고, 구름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각종 만물의 그 존재물을 가지고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뜻 전달하는 것은 선생님 입에서 말할 때,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할 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만 여러분이 압니까? 만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만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알아라.”

만물로 계시하고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열렬하게 해 나가도록! 믿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뜻을 돌리고, 행실을 돌려서 하나님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뜻을 바치고 열심을 바치고 충성하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누구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섭리사에 와서 나 원망하고, “나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해 주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온전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많이 한 것은 많이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지요? 그것을 가지고 뜻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기대대로 잘 된다. 뜻을 배워라. 그리고 부지런히 열심 있게 충성하며 하라 그러면 기대대로 잘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힘을 받아라. 기도를 하여라. 지식과 지혜적인 사 람이 되어라.” 믿습니까?

항상 선생님이 허락치 않았는데 형제들을 원망하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막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사님들끼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물어보고 “나, 원망할 것이 있는데 원망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본인에게 물어보기 전에. 대개 오해해서 그런 일이 있고 그렇 습니다.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전화를 해 봅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이런 생각 을 한다고 원망한다고 한다. 어땠냐?”

“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럴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꼭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고 형제를 악평하 고 그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목사님을 막 악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 니다. 어느 목사님을 잘못 오해하고, 어떤 A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C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를 막 악평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악평해도 “그렇게 악평하지 말라. 내가 알아보겠다.” 하고 그렇게 이 야기를 해야지, 같이 한술 떠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 습니까?

잘못을 꼭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으면 잘못을 꼭 회개를 해야 됩 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본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 게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은 그런 마음이 없이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그렇게 악평하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은 안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막 욕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를 두고 막 욕을 하고 그

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선생님 입에서 나간 말이면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참고가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욕을 하고, 악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자기가 어느 목사님을 막 악평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 목사님은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 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공적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뭐라고 하고, 막 악평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쓰겠습니까? 그래놓고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도 악평하라.” 이같이 한답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험담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형제끼리. 알겠습니까. 자꾸 속 아픈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밀로 “너만 알아라. 너만 알아라.” 하지만, 그 사람에게 꼭 가고 맙니다. 그 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고, 오장 육부가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꼭 형제들끼리 마음 아픈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고 혈통은 이야기는 금지해야 이 섭리 세계가 마음 놓고 사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대를 거는데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 버리리라.” 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는 묻지 않고 찍어 없애 버립니다.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두 번째는 기회를 주고서, “한번 잘 해 보라. 1년 동안 거름할 테니까.” 합니다.

다른 나무는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칭찬 받고 좋아합니다. 이 세 가지로 보시고 역사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한 것을 듣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며, 이치와 법칙을 깨닫고 그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을 향해 말씀했으니 듣고 깨닫고 열심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 이들을 지키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귀신과 악한 자들과 모든 발의 가라지는 뿔아 없애버리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은총에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축복하니 모두 잘되고 형통할지어다. 아멘.